

사람은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신경정신과 박사 피상순

살 때는 삶에 철저히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법정 어른스님이 오늘 오후 1시 51분 열반에 드셨습니...”

해달라고 치성을 드린 끝에 태어난 소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법정 스님은 늘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약 그때 사망했으면 재능이나 지내주며 슬퍼하다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질 생각을 하니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새삼스레 되새긴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십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7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읍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석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을 마치 엇그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리는 피상순 박사. 코끝이 금세 빨개진다.

“불일에 맞이꽃이 많았어요. 한 여름 저녁이면 노란꽃잎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향 시나브로 병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 시름이 다 사라지죠. 겨울 저녁 침묵화가 필 때, 스님은 명상 음악을 한 곡 틀어주세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그 음악을 들곤 했어요. 향긋한 침묵 향기가 섞인 맑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음악을 듣다 보면 ‘이곳이 극락정토가 아닌가’ 싶었어요. 것처럼 스님은 늘 분위기도 완벽하게 연출하세요. 나들이를 하셔도 어느 곳에 어떤 풍경이 좋다는 걸 아시곤 딱 그때 맞춰주세요. 유달산도 꼭 보름달이 뜨는 보름날 가셨어요. 인도 타지마할도 달이 뜨면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서 달이 보인다고? 달 뜰 때 맞춰서 타지마할엘 가셨대요. 스님 삶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스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뿔어요. 스님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스님 자취를 더듬어 다니면서 꼭 빠지지 않고 듣는 이야기가 스님이 지닌 절대미감 이야기다.

- 노벨소포상이 있다면

불일식구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피상순 박사가 스님한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다.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시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유월이었나? 장미꽃이 너무 고와서 소포로 보냈어요. 스님한테. 그랬다가 산목숨을 소포로 보냈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숨 막히게 했다고.” 그 일을 스님은 <센터> 기고 글에 썼다. “그는 엉뚱한 짓을 잘한다. 한번은 장미꽃을 한 아름 소포로 부쳐와 나한테 야단맞은 일도 있다. 살아있는 꽃을 소포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던 말인가. 생명을 지닌 꽃을 왜 그토록 학대하는가.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나라라면 또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우편제도가 아직도 엉성한 곳에서는 꽃을 소포로 부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스님은 수선화도 좋아하세요. 학생 때, 친구 따라 제주도엘 갔는데 바닷가에 수선화 한 무더기가 피어있어요. 스님 생각이 나서 그냥 손으로 쓱 훑으니 까 뿌리째 뽑히더라고요. ‘스님한테 갖다 드려야지’ 마음먹고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불일암까지 갔어요. 그때도 학생이 택시타고 왔다고 한 걱정을 들었어요. 스님은 도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걱정해주세요. 아버지처럼. 그 꽃이 금잔옥대 수선화예요. 하얀 꽃 안에 노란 ‘금잔’이 놓여있는 꽃인데 향긋하기 그지없어요. 스님은 그 씨를 받아 이듬해 수선화를 많이 심으셨어요.” 스님은 그 내용도 글로 풀어내셨다. “수선은 의대생인 상순이가 제주도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얻어온 것이다. 가져올 때 꽃망울이 맺힌 걸 화분에 옮겨 심고 날마다 한 차례씩 물을 주었다. 이튿날 물이 좋아하는 수선이니까, 꽃은 50일도 넘게 짙은 향기를 내뿜으면서 마냥 피어 있었다...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서 그런지 노래 가사처럼 ‘불일 꽃 없는 정열을 가슴 깊이 감추고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이었다.”

의대를 다니던 피상순 박사는 자연스럽게 스님 건강을 챙겨드렸다. “제가 의과대학엘 다니니까 스님은 어디가 아프면 제게 물어보곤 하셨어요. 또 스님이 몸이 불편하시면서 확인해 드리고 피나 소변을 받아다가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그런 저를 스님은 흠뻑이라고 부르셨지요. 그때 병원 검사실에선 어떤 분이신데 피와 소변이 이렇게 맑



‘꽃을 꽃 같이 여겼던’ 스님께 정미를 신문지에 싸 보냈다가 혼이 난 사람이 바로 피상순 박사다. 20대 때 일이나 30여 년 전 일이다. 스님은 꽃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 보낸 그 마음을 알았겠지만 신문지에 싸여 며칠 동안 고초를 겪었을 꽃들이 안타까웠기에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다. 꽃을 보냈던 마음과 꽃을 안타까워했던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꽃을 또 표정에는 그 시절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수선화를 듣게 한 이유는 그 마음이 공명해서였다.

으나고 묻더라고요. 불일에 가보면 가끔 스님이 빨려고 내놓은 옷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마치 갖 빨아놓은 옷처럼 너무 깨끗해요. 몸이 아주 깔끔하신가 봐요.”

피상순 박사는 스님이 필요한 필기구도 늘 사다드리곤 했다. 스님은 문방구가 떨어지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피상순 박사에게 염서를 보내 부탁했다. 그런 까닭에 스님이 붙여준 별호가 문방구담당 보좌관이다. 흠뻑터로 문방구담당 보좌관으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다보니 스님께 소포를 많이 부쳤다. 스님은 노벨소포상이 있다면 상순이 차지라고 했다.

피상순 박사는 스님이 병원에 계시실 때 몇 차례 현장 스님을 따라 갔다. 어느 날 그 날 따라 병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마침 학회에서 받은 영광편을 꺼내든 피상순 박사는 “스님, 문방구 담당보좌관 왔어요. 여기 영광편이요” 하고는 스님에게 건넸다. 오래전 기억을 떠올린 스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소녀에게 염소한 마리 보내기 바자회에 원불교 교무님이 어른스님 글씨를 한 점 내렸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가려고 답빌 만큼 인기 짱이었다는 말씀드렸더니 스님이 깔깔 웃으셨다. “말씀 끝에 스님이 같은 시대에 함께 해주셔서 울긋나래 살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스님께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디 피상순 박사뿐이라. 구한말, 배우고 익힌 바를 몸소 실천(知行合一)한 선비 면담 최이현 선생과 함께 살았다 해서 천하동생(天下同生)이라 했고, 면담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천하동사(天下同死)라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민중의 삶·신앙에서 불교의 새 길을 찾다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②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수행자, 그래서 기필코 중생의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고자 하는 원력의 수행자를 불보살은 외면하지 않는다. 중생의 고통을 건지겠다는 그 원력이 바로 일체 불보살의 본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생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그 길의 총만”을 향해 정진하는 태백산 석굴의 수행자에게도 그러했다. 1942년 가을의 어느 날, 수행자는 천연하게 피어난 흰 연꽃 위에서 계신 관세음보살을 친견한다. 오늘날 대한불교천태종의 분산이 자리하게 되는 백자동(白子洞) 계곡의 연화지는 이 친견의 인연에서 비롯된다.

1945년 1월 보름, 그 연화지에 이르러 구인사를 창건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여면서 천수다

일구어지는 도시인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깨달음을 향한 길은 마음에서 비롯됐지만, 민중과 더불어 이루는 세상은 육체의 노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더불어 이루기 위한 세상의 율타리에는 출가와 재가가 따로 없어야 했고, 일상생활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아야 했다. 자연 출가와 재가의 구분은 그리 엄격하지 않았고, 재가인보다도 더 노동하고 더 생산하고 더 수행하는 것이 출가인임을 확연히 하는 증표임을 강조하는 삶이 일생동안 지속됐다.

1974년 6월 17일, 스님은 열반에 들었지만, 그 수행의 공동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 구도자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도 외적



2006년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 조사 열반 대제 모습.

으로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법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불교는 질곡과 진퇴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인들은 ‘전

행자가 세상에 내놓은 길은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불교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선(禪)의 전통을 따르는 길도 아니었으며, 교학의 전통을 강조하는 길도 아니었다. 불교가 억압당하던 시절, 민중이 불교를 신앙하던 길이었다. 교학을 배우고 선(禪)을 닦을 수 없었던 시대에 불교가 민중들에게 제시했던 수행법은 염불을 통해 삼매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것은 일체의 침탈과 민족상잔을 거치면서 폐쇄될 대로 폐쇄된 민중들의 신앙을 불교로 이끌었던 또 다른 길이기도 했다.

그 길에 한 명 두 명 제자들이, 대중들이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천수다라니를 소리 높여 합송하는데, 저녁 무렵 시작해 다음 날 아침까지 철야정진하고, 다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3시간씩 정진이 지속하는 생활이 이후의 여성 동안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대중의 테두리가 커지고 수행의 도량이 확장됐다.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민중들의 삶과 신앙을 적극적으로 불교에 수용함으로써 그 불교마저도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게 된 독특한 결사운동이자 수행공동체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길은 산중에서 비롯됐지만, 교학의 길은 그 산중의 농투산으로부터 점차 새롭게

통’을 누누이 강조한다. 질곡과 진퇴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나마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또한 ‘전통’이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통이 ‘옛 것’으로만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 전통은 골레가 되기도 하다. 전통은 그것이 새롭게 되새겨지고, 새롭게 재해석될 때만 전통으로 살아남는 법이다.

강원도 외진 산골에서 시작된 ‘더불어 잘 사는 삶’에 대한 갈망이 세상을 돌아와 내 옆에 살았던 무지렁이 중생의 신앙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리고 그 무지렁이에게 신앙만이 아닌 새로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연 스럽게 알려주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그 원력이 찾아낸 길은 옛 출가자의 길이 아니었다. 무지렁이 중생보다 더한 무지렁이 중생이 되어 함께 염불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생산하는 그런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찍이 동아시아의 승려들이 걸었던 길이었다. 바, 절정을 벗어버리고 중생들과 함께 더 큰 절정을 만드는 새롭게 걷는 길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에서 발견해야 한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란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를, 또한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이가 바로 불보살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센터 교수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불자용수저 “다라니”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수저 선물은 주고 받는 분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선물입니다!

수저 선물은 주고 받는 분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선물입니다!

■ 사찰에는 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사찰 공양실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인데 대부분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 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는 만들 때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오래 사용하면 금긋고 달아 보기도 싫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자주 교체한다. 다라니 수저는 기존 수저를 대폭 보완, 인체 친화형 디자인으로 잡았을 때 손이 편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며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전 공정을 국내 제작하여 재질도 최고급 스텐 27종을 사용 명품 수저로 만들었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단청문양”과 “옴”자를 넣었다.

2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 제작해 드리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있다. 다라니 수저는 백화점에서 Set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공장도 가격 set당 3,000원에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영산업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시라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방생, 탐불이, 각종 행사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조용 및 조통 결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